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과거 ‘학원’이란 인기 잡지가 있었다. 학생 교양지였는데 나이 든 문인이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아련한 추억에 잠기지 않을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학원’은 당시 수많은 문학 지망생들을 발굴해 키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완도 출신 시인 김만옥(1946~1975)도 중학생 시절부터 벌써 이 잡지에 많은 시와 산문을 게재했다. 지금은 원로가 된 같은 연배의 작가들에게 들어 보면,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모양이다.

고등학교 때 이미 시집을 발간하고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한 시가 가작으로 뽑혔으며, 고교(조대부고)를 마치기도 전에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나, 그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죽히 짐작할 만하다.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1967년 조선대학교(국어국문학

과)에 입학했지만, 곤궁한 가정 형편 때문에 2년 만에 중퇴하고 말았다. 그래도 작품 활동만은 계속했다. 하여 시·소설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공모전을 쫓아다니며 여러 차례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상 상금은 결코 경제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신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도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돼 가난한 삶의 언덕을 오르내려야 했다. 결국 시인은 1975년 갓 서른의 나이에 아내와 세 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쳤다.

김만옥 시비(詩碑) 앞에 서서

“봄비가 다녀간 담장 밑 양지쪽에/ 어느 날 딸아이가 능금 씨 심는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와도/ 찻은 나지 않고 가슴 죄는데/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와서/ 까마득 그 일 다 잊어버릴 때/ 딸아이가 마음 속에 능금 꽃 필까/ 딸아이가 마음속에 능금이 열릴까/ 딸아이에게/ 퇴비 한 줌 주지 못한/ 어른이 송구스럽다”(김만옥, ‘딸아이의 능금’ 전문)

예전엔 사과를 능금이라 했다. 예쁜 딸아이가 사과 씨앗을 묻고 싹이 나기를 기

다린다. 날마다 담장 밑에 가 보지만, 열매는 커녕 도둑 싹이 나올 기색조차 없다. 언젠가 붉은 능금이 열리는 것을 기대했을까.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 어느 날 생각이 여기에 미친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 얼마나 미안했으면 아랫사람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송구스럽다’란 표현까지 썼을까.

오늘도 산책길에 그의 시비(詩碑)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시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있는, ‘딸아이의 능금’ 전문이 새겨진 시비다. 시를 천천히 읽는다. 그리고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딸을 떠올리며, 또 또한 시인과 같은 마음에 젖어 본다. 딸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떠올리면 더욱 죄송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이 있고, 입양의 날(11일)과 스승의 날(15일)이 있으며, 성년의 날(17일)과 부모의 날(22일)이 들어 있는 달. 비록 딱 한 달에 그칠지라도 다시 한 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달이다. 가족은 어찌 면 ‘꽃’처럼 ‘오래 보아서 예쁘고 사랑

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나태주, ‘꽃’ 1 전문)

굳이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태주(74) 시인의 ‘아내 사랑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10여 년 전, 그러니까 그의 나이 60대 초반 무렵이었던가. 중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쓴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란 제목의 시를 최근 애야 알게 됐다. 결에서 간호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병상에 누워 쓰다는 시. 참 감동적이다.

나태주 시인과 부인의 화답시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에게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삶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에게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에게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었던 여자에게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평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썩어버려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아내를 위한 애절한 마음이 똑똑 묻어 나는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남편의 시에 화답하여 썼다는 아내의 시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이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풍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도 열쇠와 노을과 풀꽃만 옥실내 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예요.”

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머니니 돈 버는 책은 책이도 없는데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예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파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강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예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했다고 먼 산 보면 사람이예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좁만 시를 읽을 수 없는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라는 대목에서는 금세 눈시울이 뜨겨워지고 만다. 이들 노부부의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문득 마누라 아팠을 때 시 한 수 내어 주지 못한 내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봄을 맞아 온갖 화려한 꽃들 피어나는데, 그대 더욱 서러운 5월이리니. 아, 봄날은 간다. 애들아. 아무쪼록 건강하렴. 어머니, 아버지!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광주수영대회 자원봉사자 3126명 선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내외 손님맞이를 하게 될 자원봉사자 3126명이 최종 선발됐다.

2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생, 주부, 90세 노인, 군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등 각계각층에서 지원한 수영대회 자원봉사자 3126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2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한 자원봉사자 총 9376명 중 광주와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면접을 실시해 최종 선발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 중에는 영어 678명, 중국어 48명, 일본어 35명, 프랑스어 20명, 그 밖의 언어 51명 등 총 832명의 외국어 특역 자원봉사자도 포함됐다.

해외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 247명의 외국인이 신청했다. 이들 중 국제대회 봉사 경력, 참여 적합도,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거주 외국인 25명과 주한 외국인 46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여수해양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오픈워터 경기 자원봉사자에 여수 시

민 180명을 뽑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부터 직무교육과 함께 동역·의전·시상 등 31개 희망 직종과 근무 장소에 따라 각 경기장, 선수촌, 공항 등 활동 분야에 배치된다. 오는 27일 공식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으로 대회 자원봉사



풍선에 소망 담아 ‘명품한우대축제·한마음대회’ 제8회 전남 명품한우대축제 및 2019년 전남한우인한마음대회가 2일 오전 나주시 영산강 둔치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손금주 국회의원, 안규상 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이민준 도의원,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 한우농가 등 참석자들이 한우농가 모두의 소망과 희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노인부터 외국인까지 다양
직무교육 후 희망장소 배치

여부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활동에 달려있다”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외국 선수단 등을 안내하는 만큼 광주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해남, 6월부터 농민수당 지급... 전국 최초
년 60만원 1만5000명 혜택... 10일까지 신청접수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오는 8월께 농민 뿐 아니라 어민들에게도 수당 지급을 검토중이다.

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역 22개 시군 중 해남군이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만큼 오는 10일까지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곧바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체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해남군은 대략 1만50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

권으로 6월께 한 차례(30만원) 지급한 뒤 명절을 전후로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후 내년에는 전남도와 연계, 연간 10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함평군도 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7월까지 신청을 받아 8-9월께 농·어민 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만원을 11-12월께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함평군은 농민 뿐 아니라 어업면허를 보유한 어민들도 포함해 대략 8000여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중이다.

함평군도 내년부터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수당’ 기준을 적용해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원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700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지하 205㎡ 은행8천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접 4630㎡ 대형저수지 인근 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물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동구 충장로 5가 최고상업지 나대지 1707㎡ 건설적합 84억
- 광산구 송학동 땅 43278㎡ 사철있음. 남급당·복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법인설립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영구대수층권지권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받은 영구대수층권지권이 없는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이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은 법인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받은 영구대수층권지권이 없는 분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사업 경험자
 -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분
 - 태양광 개발사업 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E, 토지개발, 건물임대, EPC, O&M, 운영관리, 인력 02)3440-2527, mco@daesco.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업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전략기획	전략기획	• 시장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회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관리자	
세	라	수입관리	영업	• 한일무역 관련 전공자 (무역학)	주
		세무관리 (회계/법률)	영업	• 설계영업 관리자	
			• 영업 관리/관리 전공자 유대		

* 영어능력: 영문 02)30-2527, mco@daesco.co.kr, 영어: ~ 채용서류